

그런데 이 완주 마을을 보니, ‘그만해도 돼, 지금도 잘하고 있어’라는 말이 이렇게도 위로가 될 수 있구나 싶었다. 누군가 내게 “현재도 나를 잘하고 있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라고 말해주는 것 같아서 큰 위안이 됐다.

이 소설에서 가장 좋았던 건, 일상의 소소한 순간들을 특별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매점에서 과자를 팔고, 동네 사람들과 인사하고, 함께 밥을 먹고, 그런 평범한 일들이 오히려 삶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였다.

직장생활하며 살다 보면 하루하루가 정말 비슷하다. 출근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민원 응대하고, 퇴근하고. 그런 일상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평범한 일상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라는 걸 다시 생각하게 됐다.

책을 다 읽고 나서 ‘완주’라는 단어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 보았다. 이 소설에서의 ‘완주’는 빠르게 달려서 끝내는 완성점이 아니라,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는 지점 같았다. 지금까지 달려온 길을 돌아보고, 앞으로 갈 길을 천천히 생각해보는 휴게소 같은 곳.

그래서 요즘 스스로에게 자주 물어 보려고 한다. “나 지금 어디쯤 왔을까?” “혹시 너무 오래 달리기만 한 건 아닐까?” “잠깐 주변을 둘러볼 여유를 가져도 되는 건 아닐까?”

『첫 여름, 완주』는 그런 질문들을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남겨준 책이라고 생각한다. 무언가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내가 내 속도로 걸어가도 괜찮다고, 그렇게 천천히라도 완주할 수 있다고 말해준다.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도 된다고.

이번 여름, 나도 완주라는 마을에서 잠깐 쉬어가는 기분으로, 그 말 한마디를 꽤 오래 붙잡고 가보려고 한다.

“지금도 충분해. 잘하고 있어.”